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교학품(敎學品) ②

學先難母 학선단모
 學先難友 학선단우
 學先難從 학선단종
 學先難人 학선단인

먼저 어리석음 끊기를 배우고
 임금이 두 신하만을 거느려
 여러 관리를 다 물리치면(번뇌 망상
 물리치면)
 이것이 훌륭한 도인이다

學無別類 학무분류
 不與善友 부덕선우
 不與惡友 악덕선우
 不與惡友 악덕선우

도를 배우에 친구할 이 없고
 좋은 길벗을 얻지 못하거나
 차라리 혼자서 선을 지킬 지인정
 어리석은 무리와 벗하지 말라

樂戒學行 낙계학행
 樂用伴爲 해용반위
 樂善無憂 독선무우
 如空對象 여공야상

“백세를 살지라도 뜻이 바르지 않으면 정법받아 따르며 사는 하루만 못하다”

계행을 즐기고 수행하는 길에
 굳이 짝을 만들며 무슨 소용이라
 혼자 잘 닦아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의 크거리 같은 것을

戒規俱善 계문구선
 二者孰賢 이자숙현
 方戒難備 방계징문
 宜諍學行 의제학행

계행과 수학이 고루 잘 갖춰질 때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은가
 계행이 배움을 북돋아 일으키니
 마땅히 자세히 배우고 행하라

學先難戒 학선호계
 開閉必因 개폐필고
 施而無受 시이무수
 (勿行勿取) 능행능와

먼저 계를 지키를 배워서
 여담기를 반드시 굳게하고
 베풀되 받지 않으며
 함쳐 행하되 놓지 말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形志不善 사하지불선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精進受正法 정진수정법

사람이 비록 백세를 살지라도
 사된것 배워 뜻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바른법을 받아 애쓰만 못하다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奉火修異術 봉화수이술
 不如須臾頃 불여수유경
 事戒者福稱 사계자복칭

사람이 비록 백세를 살지라도
 불을 받들거나 다른 도를 닦으면
 그것은 잠시 잠깐동안이나마
 계율 삼킨 이의 복덕만 못하다

能行說之可 능행설지가
 不能勿空語 불능물공어
 虛語無誠語 허위무성신
 智者所擇棄 지자소병기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말하되
 할 수 없는 것에 빈 말하지 말라
 거짓으로 꾸며 진실하지 못하면
 지혜로운 이의 버림을 받는다

學當先求解 학당선구해
 觀察別是非 관찰별사비

“백세를 살지라도 뜻이 바르지 않으면 정법받아 따르며 사는 하루만 못하다”

受諸惡報汝 수제음회피
 慧然不復惑 혜연불부혹

배움에선 먼저 바르게 알고자 해야하니
 잘 관찰해 옳고 그름 가리고
 옳은 이치 배웠으면 곧바로 남을 가
 르쳐
 지혜가 다시는 미혹되지 않게 하라

彼髮學牙道 피발학사도
 華衣內貪濁 초의내탐탁
 藤葉不識眞 몽몽불식진
 如觀龍五音 여룡정오음

머리풀고 샅된 도술배우거나
 풀 옷 입은 채 마음이 탐욕에 흐리면
 아득하고 아득하여 알지 못한다
 마치 귀머거리 세상소리 못듣는 것같이

學難除三惡 학난삼사악
 以藥有來毒 이약소중독
 健夫度生死 건부도생사
 如龍脫放皮 여사탈고피

배워서 능히 삼악 버리면
 약으로 온갖 독을 씻어내는 것
 굳센 이는 생사넘어 해탈한다
 마치 뱀이 낚은 껍질 벗는 것같이

龍眼

응답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천지가 생기기전 본래 내마음 어떤것인가’ 마하연서 이 화두 들다보니 서서히...

내 수행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그렇다
 면 이것부터 들어보시요. 업보라는 말 많
 이 들어 보았지요. 짓는만큼 스스로 받게
 되는것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귀때기 한대 때리면 때린 만큼 받게되
 는 것 말입니다. 누구든지 받게 되는 것이 인
 과입니다. 이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육도에서 벗어나
 지 못합니다.

부처님 설화가 생각납니다. 과거에 흉도
 비구가 있었습니다. 흉도비구는 무량겁중
 안 수행에만 정진했습니다. 어느날 흉도비
 구는 몸이 아파 소나무장자 밑에 누웠습
 니다. 그런데 소나무 삭정이 하나가 떨어
 져 그만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면 내가 좀 누워서 쉬려고 하는데 삭정
 이가 떨어져 내몸을 다치게 하느냐며 진
 심(眞心)을 썼는데 그때 몸이 땀이 뻘뻘
 납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자들은 진심을 내
 지 말고 수행에만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흉도비구는 한번 진심을 내서 땀이 뻘
 뻘이었는데 진심을 수없이 낸 우리들은 왜 그대
 로 일까요. 그것이 의문되거든 한번 물어
 요. 어찌 흉도비구는 진심 한번냈는데 땀
 이 뻘고 우리는 진심을 많이 냈는데도 땀
 이 안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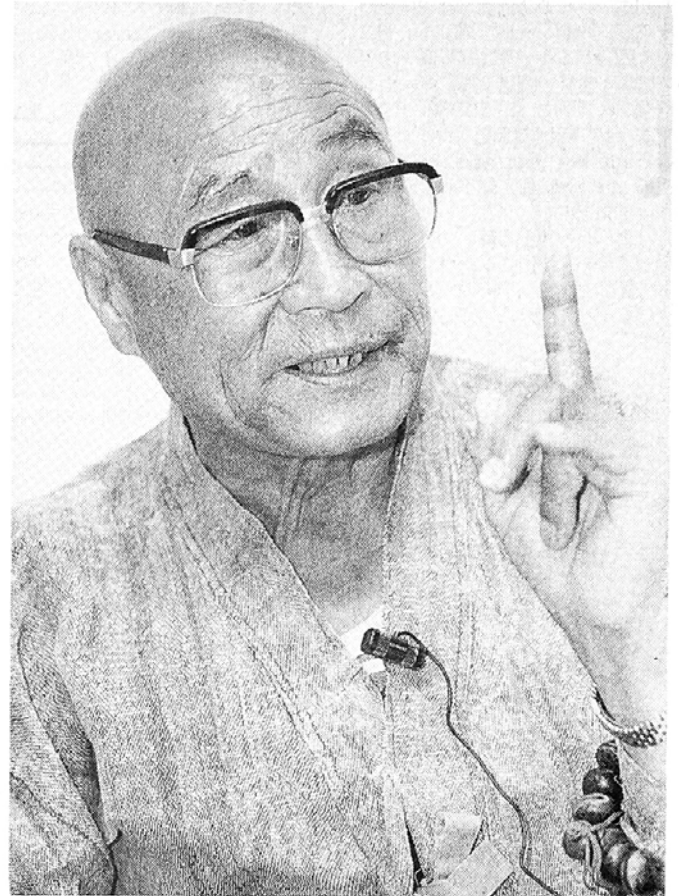
흉도비구는 광검(曠劫)으로 수도해서
 곧 부처가 될 수행자입니다. 그랬으니 그
 동안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즉 흉도비
 구는 무량겁동안 수행을 해 티끌만한 허
 물이 없고 다만 진심 한번 낸 것 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보를 받은 것이지
 요. 반면 우리들은 그동안 해야 할 수 없
 을 정도로 수많은 업보를 지어왔고 지금도
 육도에 매일 들락 날락하니 때문에 당장
 인과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생을 비
 록 세세생생 업보를 받게 됩니다.

이 몸통이 죄를 짓고 죽었다면 하룻
 낮 하룻밤 사이에 만번죽고 만번사는 것
 입니다(一日一夜 萬死萬生). 생사를 능히
 해탈할 만한 도를 얻어야 죽고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사를 해탈하면 일체고
 파 없습니다. 수행자라면 생사를 해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이야기 할 것
 없이 승려는 물론 속인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생사 즉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도록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됐을때 수행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 막 경침이 지나 계곡에서 울어대는 개
 구리 소리로 생각해도 좋고 늙은이의 푸
 녀미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처님 법을 공짜로 먹지 않으려고 싶었
 던 얘기가 귀담아 들을만 할 것입니다. 내
 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
 은 내 나이 90을 덤으로 산 것이 되겠지
 요.

나는 17살에 부모님과 일가친척을 버리
 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속가에서는 서당을
 다녔는데 특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만 있
 으면 강가에 나가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낚시 하는 친구의
 모습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을

- 1914년 충남 서산 초
- 1933년 용음스님 은사로 출가
- 1942년 금오스님 계사로 비구계
- 충남 서산 만일사 주지 역임
- 현 수덕사 서당 주석



“밤짓고 빨래하는 일도 공부죠 작은일 제대로 못하면 큰문에 못들어요”

굳게 먹고 낚시하는 친구를 찾았지요.
 친구에게 “아서라, 그 물고기도 살리고 먹
 이 찾아 온 것인데 왜 그 물고기를 죽이
 려 하느냐”고 다그쳤지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낚시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옛 고서에 따르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강태공은 끈은 바늘을 사용했어
 요. 물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이 없어서지요.
 이는 낚시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렇게는 못한 지인정 산 물고기를 잡아서
 야 되겠습니까. 내말을 안들더니 결국 그
 친구는 파도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닷가
 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 죽
 고 말았어요. 아무리 살리려고 애를 써도
 부질없었습니다. 같이 동무하고 놀던 친구
 가 하루이침에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암
 답하더군요. 그때부터 삶이란 이렇게 무상

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됐지요. 불현
 듯 ‘내 몸통이도 별 수 없겠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죽지
 않는 비법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부서주 하던중 어떤 사람이 그
 죽지 않는 방법이 절에 있다고 알려 주더
 라구요. 그래서 인근 절에 찾아 가서 스님
 께 물었지요. “스님, 여기 죽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공부하면 죽지 않는 법을 일
 러 줄 것이다.” “공부는 얼마나 하면 됩니
 까.” “많이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됩니
 까.” “나 하는대로 하면된다.” 그때부터
 스님따라 공부를 시작했지요. 한달 두달
 시키는대로 해도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을 찾아가 여쭙었습니다. “스님, 죽지 않

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더니 어찌 지금까
 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아 이놈아,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해야지 내가 어떻게
 일러주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즉시 하루빨리 죽지 않는 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서너군데 더 절에 가서 물
 어보아도 죽지 않는 법을 일러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구하려 몇달
 을 다니던중 스님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
 다. 그 스님은 “죽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이
 안 죽는 것이지 육신이 어떻게 안 죽겠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냐고 하니
 “마음을 깨닫고 싶으면 덕승산 수덕사 만
 공스님을 찾아 가라. 그러면 스님께서 마
 을 뒤는 법을 일러 주실 것이다”고 하십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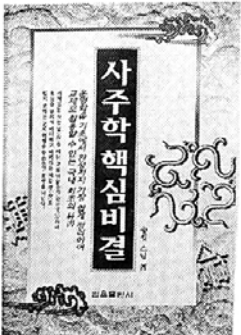
그 즉시 수덕사 금삼대로 향해 뛰어 갔
 습니다. 만공스님은 “죽지 않는 법을 진정
 으로 알고 싶다면 저 아래 수덕사로 내려
 가서 용음스님께 물어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돌려보내는 만
 공스님의 모습이 얼마나 온화하고 다정스
 러웠던지 지금까지도 잊을수 없습니다.

사주학 핵심비결

승힐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재/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사주학의 목적은 년
 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
 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역 역
 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
 화롭게 하늘의 기밀
 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
 힐 수 있어야 하므
 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
 였다.

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은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
 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
 밀스런 책입니다. 당
 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
 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
 람이 참으로 가치있
 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금강경 독송회 도서출판 **영하**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마 음 공 부 베 스트 4

그 마음을 바쳐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뉘는마음 밝은마음

김재웅 지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인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